

MBC 파고
‘블랙리스트’ 나왔다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

분류기준	
☆☆	회사의 정책에 충성도를 갖고 있고 향후 보도영상구조 개선과 관련(영상취재pd등 구조관련) 합리적 개선안 관련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들
○	회사의 정책에 순응도는 높지만 기존의 카메라기자 시스템의 고수만을 내세우는 등 구체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지 못한 이들
△	언론노조 영향력에 있는 회색분자들
×	지난 파업의 주동계층으로 현재제 붕괴를 원하는 이들



노조 혐오, 편가르기, 찍어내기...
‘블랙리스트’ 충격적 실체 베일 벗다

‘절대 격리 필요’ ‘기회시 변절 가능’ 노골적 성향 분류로 인사자료 활용

사원 개개인의 등급을 매겨 각종 인사 평가와 인력 배치 등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MBC판 블랙리스트’가 실체를 드러냈다. 한국 언론 사상 최악의 노동탄압이 자행된 공영방송사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노조 파괴 공작의 음모가 병산의 일각을 드러낸 것이다.

노동조합은 최근 충격적인 문서 파일 두 건을 입수했다. 각각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와 <요주의인물 성향>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보도 부문 카메라기자들의 개인별 성향과 출신, 170일 파업 가담 여부, 노동조합과의 친소 관계 등이 담겨 있다. 파일 정보에 따르면, 이 문서들은 2013년 7월6일 작성됐다. 김장겸 현 사장이 보도국장으로 취임한 직후이다. 이 파일들은 이듬해인 2014년 2월16일까지 수정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는 문서 작성 당시 재직 중이던 MBC의 카메라기자 65명을 입사연도에 따른 기수별로 나눈 뒤, 각각 4개 등급으로 분류해 도표 형식으로 기록했다. 분류 기준과 인원은 다음과 같다.

☆☆(6명) : 회사의 정책에 충성도를 갖고 있고 향후 보도영상 구조 개선과 관련(영상취재 PD 등 구조 관련) 합리적 개선안 관련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들

○(19명) : 회사의 정책에 순응도는 높지만 기존의 카메라기자 시스템의 고수만을 내세우는 등 구체적 마인드를 갖고 있지 못한 이들

△(28명) : 언론노조 영향력에 있는 회색분자들

×(12명) : 지난 파업의 주동 계층으로 현 체제 붕괴를 원하는 이들

〈요주의인물 성향〉이라는 제목의 다른 문서에서는 ×, △, ○의 각 등급별 일부 기자들에 대한 개인별 평가를 상세히 적고 있다. 주로 정치적 성향, 회사 정책에 대한 충성도, 노조와의 관계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게으른 인물’ ‘영향력 체로’ ‘무능과 태만’ ‘존재감 없음’ 등의 인신공격성 모욕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최하위인 ×등급은 12명 전원에 대한 인물평이 나와 있다. 주로 2012년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나, 조합 혹은 영상기자회의 집행부를 맡았던 기자들이다. 문서는 ×부류 대상자들에 대해 ‘현 체제 붕괴를 원하는 이들’이라는 노골적인 표현을 썼다. ‘(절대) 격리 필요’ ‘보도국 외로 방출 필요’ ‘주요 관찰 대상’ 등의 표현도 등장한다. 그러면서도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개인 욕심이 많기 기회시 변절할 인원’이라며 회유 가능성도 언급했다.

△부류는 ‘기존 노조의 영향력 하에 있는 회색분자’로 표현돼 있다. 문서는 이들 중 일부에 대해 ‘기존 노조와의 유대를 강화하며 영상취재PD 교육을 소홀히 한다’며 ‘강성 노조 성향’이라거나 ‘요주의 인물’이라고 경계했다. 반면 일부 기자들에 대해서는 ‘이용가치가 있는 인물’ ‘언제든 회유 가능’ 등의 표현으로 포섭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블랙리스트’는 실제로 인사와 평가, 승진 등의 핵심 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최하위인 이른바 ×등급으로 분류된 기자들은 대부분 보도국 외부로 쫓겨났거나, 보도국 내에서도 중요도가 낮은 부서 위주로 배치돼 있다. 이들은 거의 2012년 파업 이후 승진 심사에서도 매년 탈락했다.

반헌법적인 불법 행위인 ‘블랙리스트’가 비단 카메라기자들만을 대상으로 작성됐을까. 지난 수년간 전사적으로 자행된 수많은 부당 징계와 전보, 승진, 낙락 등의 비밀을 풀 단서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요주의인물 성향

×부류 (지난 파업의 주동계층으로 현재재 봉피를 원하는 이들)

[] - 파업 적극 가담계층으로 김재철 사장 퇴임당시 만세사건으로 정체성을 만천하에 보여줌. 현재는 의욕상실과 원래 본인의 능력부족과 게으름으로 영향력 상실.

[] - 민주당 정권 당시 노조부위원장 출신으로 강성노조의 대표적인 주자. 강성 일반도로 후배들의 노조
 활동 독려를 주도하고 있음. 추후 계속 격리필요. [] 추중.

[] - 2010년도 노조보도부문 영상부위원장 출신으로 극 강성인력. 2012년 파업에도 적극 가담했을 뿐 아니라 파업이후에는 언론노조전임자를 지원하는 등 요 관촬대상. 추후 보도국 이외로 방출필요.

- 2012년 파업당시 영상기자화장장으로 파업개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현재도 노조의 강경책을 그대로 따라 영상기자화 비대위를 조직해 영상취재PD에 대한 배척 및 각종 비공식적 업무 대만 등으로 조직 운영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주요 관찰 대상. 사실상 조직붕괴이후 노조인원들의 정신적 중심으로 추후 보도국 이외로 방향 필요.

2012년 파업에 적극 가담한 인물로 파업 이후에도 시사매거진2580에서 노조의 강경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 또 최근 국정원 방송사건 성명서 작성에도 후배직원들을 적극 독려하는 등 조직 운영에 악영향을 끼치는 주요 관할 대상. [redacted]과 입사동기로 정작 본인은 유유부단한 성격이지만 절대적인 동기애로 뭉친 기수로 추후에도 주요부서에서 격리 필요.

- 전 비대위 위원장겸 카메라기자회장. 2012년 파업에 적극 가담한 인물로 파업 이후 영상기자회장직을 [redacted]으로부터 물려 받아 현재 노조의 강경책을 그대로 카메라기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주요관찰대상.

—현 노조보도분문위원장. 2012년 파업에 적극 가담한 인물로 파업이 끝난 뒤 노조 보도분문 부위원장직을 이어받음. 현재 노조의 강적책을 구성원들에 전파하고 있고, 2580 국정원아이템 성명서 작성에도 깊숙이 개입한 주요관찰대상.

2012년 파업전 제작거부를 주도적으로 해야할 것을 강력히 주장 한 인물로 파업에도 적극적으로 가
입했음. 파업 후에도 청와대 및 국방부를 출입하면서 기사실의 폴 배제를 강력히 주장하여 각종 업무에 차질
을 가져오게하였으나 현재 의욕상진, 업무능력 부족하고 게은 성향과 개인욕심이 많아 기회시 변절할 인원.

인물. 파업 이후에도 기존 노조의 강경책 관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인물. 주요 부서에서 격리됨.

2012년 파업에 적극 참여한 인물로 파업 이후에도 기존 노조의 강경책 관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인물들. 2580 국정원 성명서 작성에 적극 개입하여 보도국 인원에 까지 성명서를 둘러싼. 주니어 중에 노조주요 세력으로 절대 격리필요.



전사적 '노조 파괴 리스트' ...빙산의 일각일 뿐

누가, 왜 지시했을까

블랙리스트는 누구의 지시로 작성돼 어느 선까지 보고됐을까? 조합은 이미 답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죄상(罪狀)은 검찰 수사를 통해 자세히 확인될 것이다. 분명한 점은 블랙리스트가 지휘 계통을 거쳐 당시 인사권자(2013년 7월 당시 취재센터장은 박용찬, 보도국장은 김장겸)에게 보고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부서배치와 승진 등 인사조치 대부분이 블랙리스트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조 파괴 블랙리스트’는 카메라기자들에 대해서만 작성·실행됐을까? 그렇지 않다. 문건으로 발견되지 않았을 뿐, 블랙리스트는 아나운서, PD, 경영, 취재기자, 엔지니어, 촬영감독, 그래픽 디자이너 등 MBC 내 모든 부문에 걸쳐 철저히 실행됐다.

2012년 7월 17일 170일 파업 종료 직후, MBC 경영진은 파업 참가자 200여명에 대해 대기발령, 부당교육 발령(신천 교육대), 부당전보(경인지사, 신사옥건설국 등) 발령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3년 4월 법원이 부당전보에 대해 대거 무효 판결을 내리고, 다수의 기자, 피디들이 현업으로 복귀했다. 사측은 고민에 빠진다. 블랙리스트에 따라 격리대상으로 분류됐던 200여명의 구성원들이 현업에 복귀하는 상황 자체를 극도로 경계했기 때문이다.

김장겸은 그 직후인 2013년 5월 정치부장에서 보도국장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김장겸 등 수뇌부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소송하려면 소송하라”는 식으로 축출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사측은 잇따라 뉴미디어포맷 개발센터와 신사업 개발센터 등 새로운 유배지를 급조했고, 미래방송연구소, 뉴미디어뉴스국, NPS센터 등 기존 부서도 유배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4년 2월, 안광환이 사장으로 부임한다. 그해 4월 김장겸 보도국장 등 핵심 간부들은 전 부문에 걸쳐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했다. 불응하거나 거부하는 보직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신규 추가'해 인사 불이익을 자행했다.

블랙리스트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예는 아나운서 국이다. 아나운서 국장 신동호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와있는 아나운서들은 밖으로 축출(11명)되거나 회사를 그만뒀야(12명) 했다. 아나운서 국에 남아있더라도 파업 참가 조합원들의 방송 참여는 극도로 제한됐다. 라디오, 예능, 시사제작 PD들이 수 십 차례 진행, 내레이션, 출연 요청을 해도 ‘블랙리스트’에 있다는 이유로 신동호에게 거부당했다.

간부들 사이에서 블랙리스트가 머뭇이 유통되고 활용된 정황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최근 조합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인사 상 중요한 시기마다 인사 총책임자 책상 위에 ‘블랙리스트’가 놓여 있었으며 여기 기재된 구성원들은 승진, 인사평가, 연수 등에서 불이익을 당했고 심지어 사내 단합대회 참가자 명단 등에서도 배제됐다”고 한다.

부당징계, 부당전보 등 부당노동행위에 이어 블랙리스트 범죄행위까지
발각된 상황에서 조합은 진상조사단을 가동해, 모든 직종의 블랙리스트
관련 증거를 수집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가 드러난 경영진과 간부들에 대
해서는 모두 추적·고발해 법정에 세울 것이다.

▲부류(기존 노조의 영향하에있는 회색분자)

[] - 회사정책에 대한 순응도는 높은 편이나 2012년 파업 당시 말미에 가담하여 강성노조 세력들과의 깊은 교감을 갖고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함. 또한 김재철 사장 퇴임 당시 노조세력과 함께 축배를 드는 등 잦은 변절로 인한 정체성의 문제를 갖고 있음. 결정적으로 지지세력이 강성 노조원들이기 한계.

○ []과 같이 과업시 주요 참여인원으로 후배노조원들의 신망을 받고 있음. 하지만 유연한 성격과 원만한 대인관계로 언제든 회유가능.

■ - 민주당 정권 당시 노조부위원장 출신으로 강성성향이나 전직후 보도국 업무에 무관심, 또한 극히 개인적인 성격으로 영향력 제로.

~ 2012년도 국회 새누리당 방장 이였음에도 파업 당시 적극 가담하여 기자회견 등에서 제외되는데 기여하였음. 또한 파업이후에도 경제부 영상테스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기존 노조와의 유대를 강화하며 영상취재PD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킴. 무능하고 성실한 전행으로 원만하고 유한 성격이지만 개인적 욕심은 많은 성격으로 언젠대 회유가능.

[redacted] - 2012년 파업에 적극 참여하여 기존 노조인력들과의 유대가 깊은 인물. 하지만 파업 후 기존 노조의 강경책에는 반발을 갖고 있고 영상취체PD의 교육 등 영상 시스템 변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또한 뛰어난 업무능력과 개인적 욕심없고, 좋은 친화력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인물들임. 하지만 이들 중 [redacted]은 [redacted]과 친한 일사동기로 완성이 필요한 요주의 인물

■ 현 사회1부 영상테스크, 2012년 파업에 적극 가담한 인물로 파업이후에도 사회1부 영상테스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존 노조와의 유대를 강화하며 영상취재PD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킴. 무능하고 게으르면서도 개인적욕심도 많은 ■와 ■의 추종세력.

나머지 기수들은 연차나 성향으로 볼 때 대세에 따르는 유유부단함의 희생분자들.

○부류(회사에 순응도 높지만 기존의 카메라기자 시스템의 고수만을 내세우는 구체적인 마인드가 부재)

한 특보로서 회사 정책에 대한 순응도 및 기여도는 높은 인물이나 기존 카메라가자 시스템에 고집하는 등 영상취체PD 등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또 대타인을 통한 파벌조성으로 기존 조직원들로부터 강한거부감을 가진 인물로 조직 장악력 부족으로 인해 기존 노조 강경세력인 과 연대를 꾀하는 단점을 갖고 있음.

■ - 파업참석 인원이 아님에도 정치부 발령에 거부하는 등 정체성의 문제를 갖고 있음

■ - 파업 전 보직간부였고 파업 참석하지 않는 등 회사 순응도 높은 인물이나 시스템 개선이나 조직장
악력, 심각한 업무수행능력 부재 등 문제를 갖고 있음. 영향력 제로.

■ - 과업 미가담 인력으로 회사정책에 대한 순응도는 높은 편이나 기본적인 업무와 회사일에 관심이 없는 인력. 영향력 제로.

[redacted] - 민주당 및 지역 편향성 갖고 있는 인물. 또 시스템 개선 및 조직장악력 부족 등 조직원들과의 교감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음.

■ 회사정책 운용도는 높은 편이나 시스템, 조직 장악력 및 업무수행능력 부재 등의 문제를 갖고 있음. 실제로 파업전후 보직을 맡았으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임. 영향력 제로.

[redacted] - 과업복합 인력으로 회사순응도가 높아보이는 것 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카메라가자 내 극 강성 인원
 인 [redacted] [redacted] [redacted] 등과의 높은 교감을 보이며 이들의 노조강경책을 수용하고 있음. 과업후 보도R&D
 부장을 맡았으나 영상취재PD 및 새로운 보도영상 시스템에 대한 관리 태만 및 이해 부재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현재도 nps팀장이란 직함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무능과 태만으로 존재감이 없는 인물로 현재
 영향력 상실

인사 · 평가 · 승진 · 연수, ‘블랙리스트’ 따라 춤췄다

‘블랙리스트’ 어떻게 적용됐나

‘블랙리스트’는 평가와 승진, 인력 배치, 연수 등 회사의 거의 모든 인사 정책에 반영됐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는 실종되고, 사실상의 ‘인사 기준’으로 블랙리스트가 활용된 것이다.

최고 등급인 ‘☆☆부류’의 당사자들은 현재 보직을 맡고 있거나, 정치부·사회부 등의 주요 영상취재 포스트를 장악했다. ‘충성심이 높고, 정책 순응도가 높은 부류’라는 평가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짙다. 그 다음 등급인 ‘○부류’로 분류된 인사들 역시 관계회사 임원에 보임되고, 본사 보직 간부로 재직하고 있다. 이외에 청와대와 국회 등 많은 기자들이 선호하는 주요 출

입처 근무자들이 많다.

반면 최하등급인 ‘×부류’는 대부분의 기자들이 보도국 밖으로 밀려나 있다. 2012년 파업 이후 징계와 강제 교육 등을 거쳐 현재 스포츠국과 수도권 지국, 인터넷뉴스부, 생방송뉴스팀, 시사제작2부(2580팀) 등에서 근무 중이다. 보도국 내에 남아도 사회부와 전국부 등의 현장 취재나 기획취재부 등 이른바 3D 분야에 배치돼 있다.

2012년 이후 직급 승진 결과도 블랙리스트의 등급 분류와 거의 일치한다. ☆☆와 ○부류는 파업 이후 승진 인사 때마다 1~3단계씩의 직급

을 승진했다. 그러나 △와 ×부류 중 10여 명은 5년간 단 한 차례도 승진하지 못했다. 심지어 입사 16년차의 한 기자는 자동승급 대상인 차장대우급 승진조차 못한 채 사원급에 머물러 있다. △와 ×부류는 파업 이후 승진을 했더라도 모두 단 한 차례에 그쳤다.

연수나 포상 등의 특혜도 일부 충성도 높은 인물들에게 집중됐다. 이번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은 영상PD들의 취재 교육을 마치고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이 주재하는 회식 자리에서 6개월간의 해외연수를 제안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매년 연말에 시상되는 창사 기념 포상자 명단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들이 받은 상은 당시 보도국에서 단 2명만 수상할 정도로 이례적이었다.

170일 파업 도화선 ‘영상취재 부문’ 보복성 사찰 · 탄압

왜 카메라기자였을까

왜 카메라기자가 사측의 타깃팅이 되었을까? “증거 없는” 불법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등을 자인했던 ‘백종문 녹취록’ (2016년 1월 25일 언론 공개)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2014년 4월과 11월에 녹음된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백종문 당시 미래전략본부장은 “회사를 망가뜨린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개네들이 전부 다 일을 안 하고 노동조합에 이렇게 같이 노동조합에 몸을 담아가지고 자기네 기득권 지키겠다는 사람들이예요. 카메라기자, 아나운서, 영상카메라, 보도국의 일부, 요런 친구들, 교양국에 일부...”라고 말했다.

저급하고 천박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지만, 이 발언대로라면 김장겸 · 백종문 등 MBC 경영진은 이미 오래전부터 카메라기자들을 “노동조

합에 몸을 담아서 자기 기득권 지키려는 사람들”로 분류하고 격리 · 관찰 대상으로 낙인찍었다. 그리고 격리 · 관찰을 실행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같은 근거자료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다.

카메라기자들이 MBC 경영진에게 얼마나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는지는 다른 자료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12년 MBC 170일 파업의 도화선은 당시 한미FTA 반대집회 현장을 취재했던 이성재 카메라기자의 글이었다. 현장에서 느낀 자기반성과 함께 MBC의 보도행태를 비판하는 그의 글을 계기로 MBC 취재기자와 카메라기자들의 집단행동(제작거부)이 시작됐다. 이렇게 카메라기자들은 취재기자와 함께 MBC 170일 파업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 당시 MBC 기획홍보본부장이던 이진숙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FTA를 취재하던 한 카메라 기자의 편향된 감정 발언이 발단이 된 것 같다”고 말하

기도 했다.

이들은 보복 인사 수준을 넘어 카메라기자 조직을 아예 해체시켰다. 2012년 8월 17일 카메라기자들이 소속돼있던 영상취재1부 및 2부, 시사영상부, 스포츠영상부 등 부서 자체를 폐지했다. 이후 카메라기자들은 20여 개 부서로 분산 배치됐다.

블랙리스트의 작성 배경은 결국 하나로 압축된다. 카메라기자들이 ‘파업의 원흉’으로 낙인찍히는데 이어 ‘탄압과 축출, 배제의 대상’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직과 대기발령 등 보복징계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측은 한국 언론 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채용을 강행했다. 파업기간, 파업 직후 시용기자와 영상취재PD(35명)를 대규모 채용한 것이다.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따라 카메라기자들을 소고기 등급 나누듯 분류했고 5년 동안 그에 따른 격리 · 관찰 등 보복인사를 실행했다.

반헌법적 ‘블랙리스트’ 일파만파 ... 조합·피해자들, 내일 검찰에 형사 고소 영상기자회 긴급총회, ‘제작 중단’ 동참 등 검토



사측의 노조 파괴 공작, 조합원 탄압의 결정적인 물증이 하나 들쭉터져 나오고 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헌법적인 중범죄이다. 노동조합은 영상기자회 및 블랙리스트 피해 영상 기자들과 함께 내일(9일)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물론,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자, 블랙리스트에 맞춘 인사 등을 실행한 자들까지 모두 고소 대상이다.

그동안 영상취재부에 대한 보복성 해체 등 온갖 유무형의 핍박과 불이익을 받아오던 영상 기자들은 어젯밤 총회(사진)를 열어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확인했다. 영상기자회는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자들의 책임을 묻고, 블랙리스트 작성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 제작 중단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블랙리스트’ 어떤 처벌 받나

헌법 33조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로 분류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중범죄이다.

그럼에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자들은 입맛대로 동료의 사생활

과 인격을 침해한 성향 분석을 자행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기자들에 ‘X 등급’을 매긴 뒤, 보도국 밖으로 쫓아냈다. 또한 임의로 일부 영상 기자들을 ‘회색분자’로 분류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려 했다. 노동조합을 탈퇴한 사람들은 최상위 등급으로 분류하고 주요 출입처에 배치해 주거나 승진을 시켜줬다.

이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한 노동조합법 81조 1호와 5호를 깬 무시한 범죄 행위이다. 동시에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나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81조 4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모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이 인사권과 근무 평가 권한을 악용해 보도 영상을 기록하는 영상 기자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는 점이다.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영상 기자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방해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이다. 노동조합과 영상기자회는 이 같은 범죄혐의들에 대해 모조리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사측은 그간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조합원들을 쫓아내기 위해 전사적인 차원에서 위법, 불법, 탈법, 편법 수단을 동원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 기자 블랙리스트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PD·기자 창사 이후 첫 ‘동시 제작 중단’

콘텐츠제작국·보도국 등으로 확산 조짐

〈PD수첩〉에 이어 〈시사매거진 2580〉과 〈생방송 오늘 아침〉 등을 담당하는 시사제작국 소속 PD와 기자 30여 명이 제작 중단에 동참했다. 기자와 PD가 동시에 제작 중단에 나선 것은 MBC 창사 이후 처음이다. 시사제작국 구성원들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부터 제작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은 “저항하는 기자와 PD는 쫓겨나거나, 남아서 최악의 방송을 막기 위해 고통 받았다. 언론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공정성이라는 가치는 사치가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제작 중단에 돌입한 기자와 PD들은 출근시간과 점심시간, 퇴근시간 등 하루 3차례 회사 안팎에서 피케팅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 중 일부 대표단은 송일준 PD협회장, 왕중명 기자협회장, 권혁용 영상기자회장 등과 함께 지난 4일 경기도 과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MBC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역시 MBC 사태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PD수첩〉과 〈시사매거진 2580〉의 작가들도 잇따라 제작 중단에 동참하며 지지·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PD수첩〉 작가 12명은 “집필은 중단됐지만, 굴복하지 않겠다”며 “다시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 〈PD수첩〉으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다. 〈시사매거진 2580〉의 전·현직 작가들도 어제(7일) 성명을 냈다. 이들은 과견직 노동자로서의 불안정한 신분임에도 해고를 감수하고 제작 중단에 동참했다. 작가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과리 목숨이다. 그렇지만 하늘 아래 부끄러움 없이 우리 전부를 회사에서 내보내고 경영진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사람을 뽑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지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기자·PD 4명에 추가 대기발령(2개월)
사측 ‘땀질 인사’로 결방 막는 데만 급급

불공정 방송과 프로그램 제작 자율성 침해에 저항하는 제작중단은 앞으로도 확산될 조짐이다. 시사교양 PD들이 근무하는 콘텐츠제작국은 오늘(8일) 총회를 열어 제작 중단 동참을 논의한다. 반헌법적 범죄 행위인 ‘블랙리스트’ 과문의 당사자인 영상기자회도 제작 중단 돌입을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MBC 기자협회 역시 어제 긴급 대의원 회의를 개최해 제작 중단 동참 여부와 향후 투쟁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주 안으로 보도국 총회를 열어 구성원들의 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보도국 경제부 소속 기자 21명은 어제 기명 성명을 내고 “악의적인 ‘청부 제작’ 지시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MBC 뉴스라는 소중한 자산을 청부 지시로 얼룩지게 한 문호철 보도국장과 허무호 편집센터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며 “수년간 보도부문을 장악하고 현 보도국 체제를 만들어 놓은 장본인 ‘김장겸 사장’의 퇴진 또한 분명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경제부 기자들은 부당한 제작 지시에 단호히 거부하고, 그 지시 내역을 “토씨 하나까지 낱알이 기록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잇단 제작 중단 움직임에 사측은 여전히 징계 위협으로 맞서고 있다. 이영백 PD의 대기발령에 이어 지난 4일(금)에는 김현기 PD와 노경진·권혁용·박중욱 기자 등 4명에 대해 대기발령 2개월을 통보했다. 또 시사제작국의 제작 중단에 따른 프로그램 결방을 막기 위해 시사제작2부에 보도국 취재기자 2명과 영상PD들을 발령내는 꼼수로 땀질 처방에 나섰다.

“동료 · 후배들에 부끄럽다” 짐 싸는 보직 간부들

‘제작 중단’ 시사제작국 보직부장 2명 사퇴

제작중단 투쟁이 확산되면서, 제작진의 취지에 동참하는 간부들의 보직 사퇴도 잇따르고 있다. <PD수첩>팀의 제작 중단 돌입 직후 담당 부장이 사퇴한 데 이어, <생방송 오늘 아침>을 담당하는 김형운 시사제작4부장도 지난 4일 “보직자로서 제작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대로 노력하지 못했다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게 됐다”며 사퇴했다.

김형운 부장(1995년 입사)은 사내 커뮤니케이션 게시판을 통해 “올해 3월 시사제작4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제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나마 MBC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시사제작국의 동료, 선배 PD와 기자들이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해 제작거부에 나서는 것을 보면서 한 명의 PD로서 그 뜻에 공감해 보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앞서 장형원 전 시사제작3부장도 지난달 24

일 “지금까지 제가 있는 프로그램과 저와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이라도 지키고 싶다는 일념으로 일해 왔다”며 “하지만 최근 같이 일하는 PD들과 입사 동기인 김민식PD를 보면서 많이 부끄러웠다. ‘국민을 속이는 방송을 했고 지금도 정확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방송을 제작한’ 책임을 지고 <PD수첩> 팀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추가 보직 사퇴 움직임... “지금이 마지막 기회”

이밖에도 “최근 불거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위법행위, 예전보다 더 기승을 부리는 불공정 보도사태를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직 사퇴를 고려하며 조합 가입을 타진하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조합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들의 합류 소식을 조합원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아직도 김장겸의 ‘막장 체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갈등하는 보직자들과 비조합원들의 가입도 환영한다. 늦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① 유선전화 (02)789-3881

② ‘카카오톡 친구’로 신청 : 카카오톡 채팅 → 윗부분 돋보기에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검색 → 친구 추가 후 가입 신청 메시지)

“김민식의 입을 막아라” 사측의 ‘꼼수 인사위’ 통보 11일 김PD 인사위 속개... “구두 소명 종료” 일방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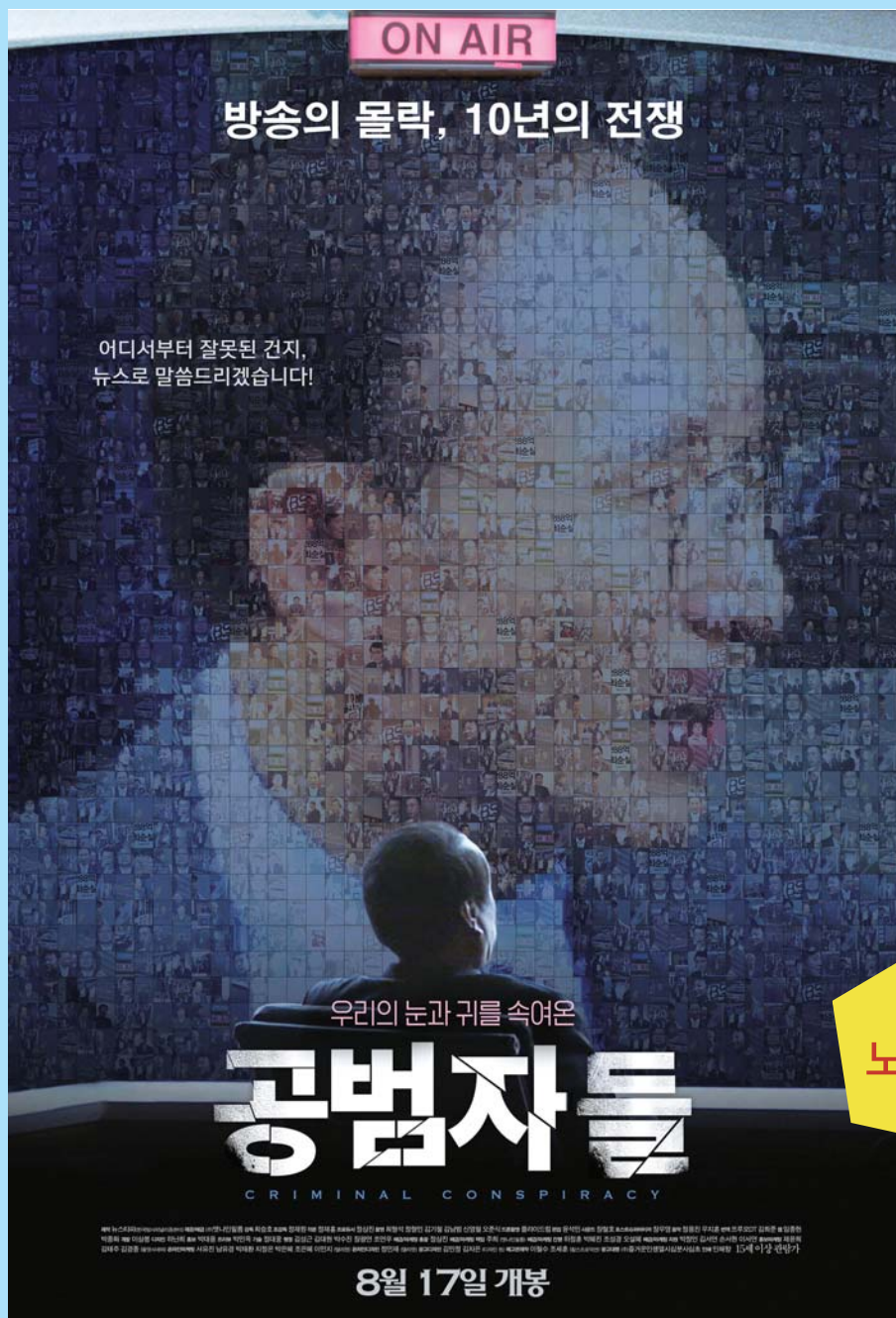
사측이 급기야 김민식 PD(사진)의 인사위 출석을 가로막는 무리수를 강행하고 있다. 사측은 김민식 PD에 대한 세 번째 인사위원회를 오는 11일(금) 오전 9시 30분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그런데 이전 두 차례 인사위에서 소명을 다 듣지도 않고 정회했던 사측이 인사위 재개 사실을 알리면서 구두 소명 절차가 종료됐다고 통보했다. 인사부가 김PD에게 보낸 공문에는 “구두 진술을 통한 소명 절차는 종료하며, 추가적인 소명 사항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적혀 있다. 사실상 소명할 기회를 박탈한 채 인사위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노동조합에 알려진 내용과는 판이하다. 사측이 노동조합에 보낸 인사위 개최 통보서에는 분명히 “심의대상자(김민식 PD) 및 노동조합 대표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김민식 PD의 출석과 구두 소명이 사실상 가로막혔다는 사실을 모른 채 노동조합이 인사위에 출석하도록 유도해, 당사자 소명 없이 인사위를 끝내려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해석된다.

MBC의 사규는 “징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진술의 방법과 시간 등에 제한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구두 진술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명백한 사규 위반이다. 설령 인사위에서 징계를 강행한다 해도 절차를 위반한 원천 무효이다. 노동조합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수많은 불법, 편법 징계를 겪은 구성원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또한 법적인 책임 역시 회사에 있음을 명백히 밝혀둔다.





《공범자들》 2차 노동조합 시사회 ‘내일’입니다

김장겸 · 김재철 · 안광한 등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빈축’

언론 회복 프로젝트 《공범자들》의 노동조합 2차 시사회가 내일(9일) 상암CGV에서 개최된다. 지난 2일 열린 1차 시사회(사진)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들이 대거 관람을 신청하고 있다. 영화 상영 이후에는 최승호 감독을 비롯 출연 배우들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된다.

오는 17일 개봉을 앞두고 (주)문화방송과 김장겸 · 김재철 · 안광한 등 전 · 현직 사장들이 최근 법원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의 인용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라 MBC 파괴 공범들이 오히려 영화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공범자들》
노동조합 시사회

언 제 : 8월9일(수) 저녁 7시
어디서 : 상암CGV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노동조합 카카오톡으로 신청해주세요

카카오톡 채팅 → 윗부분 돋보기에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검색 → 친구 추가 후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서울을 제외한 각 지부는 8월10일 이후 예매권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반헌법적 범죄 ‘블랙리스트 만행’ 규탄 집회

시간 : 내일(9일) 오전 11시40분

장소 : 상암동 MBC 사옥 로비

‘요주의 인물’이라고? ‘격리가 필요하다’고?

공영방송 MBC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블랙리스트’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회사 정책에 저항했다고, 파업에 참여했다고, 공정방송을 요구했다고...
사원들을 쇠고기 등급 나누듯 분류하고 차별했습니다.

MBC 파괴 9년, 방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블랙리스트’의 희생양입니다.

더는 당할 수 없습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김장겸 · 고영주를 몰아냅시다!